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 비교연구

김 은 숙*

본 논문에서는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의 노랫말과 현 위치를 비교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두 자장가의 공통점은 첫째, 육아의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둘째, 자장가에 내포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인 요소 때문에 노래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재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키워준다. 셋째, 고유한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넷째, 자장가 가사는 간단하고 반복이 많아 부르기가 용이하다. 반면에 차이점으로,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는 아이 돌보는 이가 인지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리듬, 소재나 주제 면에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노랫말에서도 독특한 민족성을 드러냈다. 또한 전래 자장가를 수용, 홍보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독일과 한국은 상이한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각각 다른 발전 경로를 거쳐 발전해 왔다.

※ 주제어: 자장가, 문화, 어린아이, 민족성

차 례

I. 서론

II.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 비교

1. 노랫말 비교
2. 독일 자장가의 현 위치
3. 한국 자장가의 현 위치

V. 결론

* 조선대학교 독일어 문화학과

I. 서론

문화가 새로운 산업자본으로 대두되면서 문화를 바탕으로 자국을 알리는 이미지 메이킹이 세계적인 붐을 타고 있다. 과거에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데 온 전력을 다했지만, 현재에는 문화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타 국민의 생활방식을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제 문화는 각 국가의 오래된 전통으로만 보존되고 보호하는 영역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를 논하면서 문화에 대해 담론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독일에서는 독일 자장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현시대를 사는 독일인들에게 뿐 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그 위대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더욱이 독일의 수많은 예술가들은 독일 자장가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그림형제 Bruder Grimm(Jacob Grimm 1785-1863)/ (Wilhelm Grimm 1786-1859), 브렌타노(Clemens Brenntano 1778-1842)와 아르님(Achim von Arnim 1781-1831)이 자국민의 민족성 고취를 위해 구전되어 오던 고유한 이야기와 전래 노래를 수집하는 데 몰두했던 시기라면, 현재 독일인들은 조상들이 일구어 낸 결과물을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문화콘텐츠로 양성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 통신망의 거침없는 발달로 전 세계는 보다 더 신속히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의 홍수 속에 실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의 범람은 한 특정한 문화만이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자리를 마련해주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 전파된 서양 음악의 위세가 그 실례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음악인 자장가에 있어서는 독일 자장가가 가장 친숙하게 들릴 정도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에 대한 연구는 음악학적 측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노랫말을 중심으로 한 문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선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를 보다 더 명백하게 이해하기 위해 두 전래 자장가의 가사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 자장가의 독특한 점과 공통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전래 자장가를 수용, 홍보하고 전파하는 두 나라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 비교

1. 노랫말 비교

독일 전래 자장가는 아이를 재우려는 순수한 목적 이외에 유아를 교육할 사회화의 방책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독일 전래 자장가는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 관계 속에서 수용된다. 예컨대 한국 전래 자장가는¹⁾ 독일의 전래 자장가가²⁾ 내포하고 있는 교육적인 의도보다는 자장가의 순수한 목적인 아이 잠재우기에 충실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민중이 직접 창작해 부르고 전승되어 온 자장가에는 현실과 밀접한 요소에 의해 노래되므로 이러한 노래는 아이의 상상력, 정서 및 사회성 형성 과정과 긴밀한 연관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전래 자장가는 신의 세계를 경외하는 자장가, 경고하는 자장가, 위협적인 자장가, 불평조의 자장가, 전설적 존재인 잠 요정과 달에 사는 사람이 등장하는 자장가,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는 자장가로 구분된다(김은숙, 2013, p. 71). 반면, 한국 전래 자장가는 어머니의 부재를 노래한 자장가, 아이의 가치를 비교하는 자장가, 신세타령 자장가, 위협적인 자장가, 삼신할머니의 친근함과 위력을 노래하는 자장가, 아이의 사회적 성공을 노래하는 자장가로 분류된다. 한국 전래 자장가를 노랫말 중심으로 주제별로 상세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부재를 노래한 한국 전래 자장가

아강 아강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아강 아강 자장 자장/
니가 울면/ 엄마가 젖을 주련만/ 북만산친 가신 엄마/ 언제나 또 다시 볼까/ 복남아 우지
마라/ 첫 이레날 니가 울면/ 어머님이 젖 주시련만/ 니가 울면 내 눈에서 피가 난다/ 우지
마라 자장 자장/ 뒷집이 멍멍이두 잘두 자고/ 앞집이 삼삼이두 잘두 잔다/ 자장 자장 어서
자고 엄마 생각 말어라 (충남자장가. MBC 라디오 문화방송, 1995, CD 5-14).

1) 본고에서 언급되는 한국 전래 자장가란 작곡자나 작사가가 미상인 민중들에 의해서 노래된 우리가
락에 적합한 옛 자장가를 말한다. MBC문화방송이 채록한 전래 자장가는 42곡으로 밝혀지고 있다.

(출처: MBC 라디오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1993-1995)

2) 본고에서 언급되는 독일 전래 자장가란 작곡자나 작사가가 미상이거나 시기적으로 19세기 초까지
창작된 독일 자장가를 말한다. 독일 전래 자장가는 70곡 이상이 수록되어 있다. (Gerstner-Hirzel,
Das volkstümliche deutsche Wiegenlied, 1984)

상술된 충남 부여 자장가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아이의 신세를 안타깝게 여기는 노래로 어려서 동생들을 키울 때 불렀던 노래로 해석되고 있다(충남자장가, MBC 라디오 문화방송, 1995, CD 5-14). 한국 전래 자장가에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대신 어머니의 존재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이 각별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머니의 희생적 자세는 오랜 역사를 두고 우리 민족의 전통의 맥처럼 수용되고 있다(장영란, 2007, p. 1). 한국인에게 이해되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자신보다는 자식의 삶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으로 각인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부재는 한국사회에서 아이에게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고로 한국 전래 자장가에는 어머니의 사망이나 사라짐, 잠깐 떠나 버림에 노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³⁾

한편, 독일 전래 자장가에 아버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아버지는 사망했거나 포악하고 멀리 떠나 가버렸거나 미쳐버렸거나 추적당해서 낯선 곳에 버린 사람으로 등장한다.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자장가를 노래하는 이와 아이의 어머니 그리고 아이와의 사적인 가정사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비롯된다(Grundmann, 2001, p. 16). 독일 자장가에 묘사된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동하는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전래 자장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Grundmann, 2001, p. 6).

어린 아이야 자거라/ 너의 아버지는 양을 지켜야한단다/ 네 어머니는 어린양을 경계해야한단다[...].⁴⁾

Schlaf Kindlein schlaf/ dein Vater hüt't die Schaf/ dein' Mutter hüt't die Lämmerlein[...]
(Gerstner-Hirzel, 1984, p. 188).

3) 윤혜원, 2011, p. 7에서 재인용.

우리 애기 잠재 주게/ 가고 없네 가고 없네/ 우리 엄마 가고 없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관장 같은 가장 두고/ 우리 엄마 가고 없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구름 같은 살림 두고/ 바다 같은 전답 두고/ 우리 엄마 가고 없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잠재우게/ 저기 가는 저 선비야/ 저 승길을 갈라는가/ 저승길을 갈라거든/ 우리 엄마 만나거든/ 우리 애기 젓 주라고/ 청님 기별 하여 주게/ 가고 없네 가고 없네

윤혜원, 2011, p. 6에서 재인용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네 어머니 멀리 갔다/ 옥방 구석 흥두께가/ 짝이 나면 온텔는지/ 찬장 밑에 이팝 삶은 게/ 짝이 나면 올래는지/ 아가 아가 울지 마라/ 병풍 안에 그린 닭이/ 회칠 적에 나이 엄마 온다더라/ 흥두께에서 짝이 나면/ 짝이 나면 나이 엄마 오려는지/ 삶은 밤에서 짝이 나면/ 짝이 나면 나이 엄마 오려는지

4) 본 논문에서 소개되는 독일어 원서는 필자가 원본의 뜻에 적합하게 의역한 것이다.

자장가에 나타난 어머니의 사회계층은 하층민으로 아버지처럼 일을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독일 전래 자장가에도 어머니의 부재를 소재로 한 슬픈 텍스트가 종종 등장한다. 그러나 자장가에서는 어머니라는 소재 보다는 천사라는 존재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강조된다. 천사들이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수호천사가(Schutzengel) 그 실례이다. 독일인들 3분의 2가 수호천사를 실생활에서 믿는다고 2005년 잡지 게오는(GEO) 앙케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⁵⁾ 게오의 발표만 고려해 보더라도 독일인의 수호천사에 대한 신뢰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다음 소개될 노래는 천사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현하는 자장가이다.

저녁때면 나는 잠자러 간다네. 14명의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네/ 둘은 나의 머리맡에서, 둘은 내 발 곁에서/ 둘은 오른쪽에, 둘은 왼쪽에/ 둘은 나를 잠재워주고, 둘은 나를 깨워준다네/ 둘은 나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 준다네!

Abends will ich schlafen gehn, vierzehn Engel um mich stehn:/zwei zu meinen Häupten, zwei zu meinen Füßen,/ zwei zu meiner Rechten, zwei zu meiner Linken,/ zweie, die mich decken, zweie, die mich wecken,/ zweie, die mich weisen zu Himmels Paradeisen (Weber-Kellermann, 2007, p. 54.)!

자장가에는 노래하는 이의 내적세계가 자장가의 노랫말로 서술된다. 따라서 군더더기 없는 분명한 언어에는 민중들의 보편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게 한다. 14명의 천사는 중세부터 신적인 존재처럼 잠이 죽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나 페스트와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유행할 응급 상황 시 인간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해주는 구원자이자 보호자로 숭배되었다(Weber-Kellermann, 2007, p. 55).

한편, 자장가에 사용되는 언어는 추상적인 언어보다는 구체적인 언어가 사용되었고 잠 자거라 schlafen(Grundmann, 2001, p. 8)나 어미가 -lein, -chen으로 끝나는 단어인 어린 아이야(Kindlein), 작은 왕자야(Prinzchen), 작고 귀여운 꽃과 같은 아이야(Blümelein) 등의 언어형태가 사용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이의 가치를 비교하는 유머러스한 한국 전래 자장가

자장 자장 울 애기는 울 애기는/ 잘도 잔다 울 애기는 꽃밭에도/ 재워주고 نوم 애기는 개똥밭에/ 재워 주고 울 애기는 잘도 잔다/ 울 애기는 잘도 잔다 (윤혜원, 2011, p. 8에서 재인용).

반어법을 사용하여 ‘울 애기는 꽃밭에’와 ‘ نوم 애기는 개똥밭에’에서 ‘꽃밭과 개

5) Warum Schutzengel heilen helfen (2007). Welt Online vom 16. November.

똥발, '울 애기와 놈 애기'는 반대적인 요소를 맞대어 익살스러움을 더 하고 있다. 게다가 아이의 사회적 환경을 똥발과 개똥발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본인 아이의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타인의 아이를 비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한국인에게서 종종 찾아 볼 수 있는 성향이다. “한국인의 사회적 인간관계에서 개인은 독립적이라기보다 타인과의 하나됨 형성을 지향한 '관계성 개인'이기 때문에(최상진 외, 1999, p. 392) 타인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양에서는 독자적인 삶의 형태가 이상적인 것으로 수용된다. 때문에 독일 자장가에는 어린 아이들을 비교하는 가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독일 전래 자장가에도 아이를 놀려줄려는 목적으로 아이의 존재를 비아냥거리며 부르는 자장가 패러디(Wiegenliedparodie)가 있다. 유모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젊은 하녀 혹은 아이(동생)를 돌보아야만 하는 형제자매가 부모나 아이에게 거칠게 비방하고 외설적인 언어로 욕설을 하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자장가이다 (Gerstner- Hirzel, 1984, p. 38). 잠들지 않는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특별히 부족한 부분을 부각시키며 우스꽝스럽게 놀리거나 회화하며 놀림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세 번째, 신세타령의 한국 전래 자장가

자장 자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명명 개야 짖지 마라/ 꼬꼬 닭아 우지 마라/ 못 하겠네 못하겠네/ 삼시묵고 뒤둥 박고/ 애기 보기 못하겠네 (윤혜원, 2011, p. 9에서 재인용).

농경위주의 생활사에서 자녀 양육은 일반적으로 어머니 이외의 다른 일가친척이나 할머니⁶⁾, 형제자매가 어린아이 돌보기에 참여했다. 따라서 형제자매⁷⁾, 심지어는 어머니까지도 아이 돌보기 탄식 자장가를 부르곤 했다. 여성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머니는 지나친 가사노동과 육아부담 때문에 고된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상술된 진도 자장가를 통해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강동학은(2002)

6) 경상남도 자장가. MBC 라디오 문화방송, 1994, CD 5-15.

[...]어레 어레 어레 어레/ 오야 우지 마라/ 애미 올 떠나 우지 말고/ 할매 품에 잠 잘 잔다[...]

상술된 자장가는 할머니가 손자를 잠재우기 위해서 불렀던 자장가이다.

7) 윤혜원, 2011, p. 9에서 재인용.

얼래 얼래 우리 애기/ 잠재 주게 얼래 얼래/ 잠재 주게 잠재 주게/ 우리 엄매 어디 가고/ 이렇게도 못 오는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자거라 잠자거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상술된 자장가는 형제자매가 어린동생을 돌보면서 불렀던 자장가로 추정된다.

자연발생적이며 인간적인 감정이 물씬 풍기는 이러한 성향의 자장가를 노동요 가운데 양육요로 분류하기도 했다(pp. 250). 과거 독일 여성들의 상황도 위에서 언급된 어머니로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독일 여성들은 부엌, 교회, 어린아이가 그들의 주요 활동영역이었다(Weber-Kellermann, 1975, p. 102). 따라서 육아는 당연히 여성의 역할이었으며 아기를 잠재우기 위해 자장가를 부르다가 자신들이 잠들기도 하였다(Ingeborg, 1997, p. 51).

잠 좀 자거라 내 아기가, 작은 별들이 떴단다. 아이-아, 아이-아, 나의 조그마한 아기가,
잠 자거라 내 아기가, 이제 잠 자거라.
Kindlein mein, schlaf doch ein, weil die Sternlein kommen. Ei-a/ei-a, Wieglein mein,
schlaf, mein Kindlein, schlaf nun ein (Weber-Kellermann, 1997, p. 59)

자장가에서 명령형인 ‘잠 좀 자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로 노래하는 이의 경고 내지 희망이나 소망을 나타낸다. 육아가 힘든 노동임을 의미하는 독일 전래 자장가는(Schurian-Brencher, 2001, p. 813) 도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레트헨, 왜 우느냐/ 그렇게 슬피우느냐/ 그레트헨, 도대체 왜 그렇게 우느냐/왜 그렇게도
슬피우느냐/ 다른 소녀들이 단것을 입 맛 다실 때/ 나는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해요[...]/ 그레
트헨, 왜 우느냐[...]/ 다른 소녀들이 산책하러 갈 때, 나는 요람 곁에 있어야만 해요[...]
Gretchen, warum weinst du/ weinst du so bitterlich/ und Gretchen, warum weinst
denn du/ warum weinst du denn so sehr/ Wenn andre Mädchen Zucker knatschen/ muss
ich meine Windeln waschen [...]/ Gretchen, warum weinst [...]/ Wenn andre Mädchen
spazieren gehen. muss ich bei der Wiege stehen[...] (Gerstner-Hirzel, 1984, p. 22).

‘요람에 있어야하네(Wiege stehn)’라는 음절은 대부분 불평조 자장가(Wiegenklage)의 기본적인 형태로 독일 자장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자장가는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어머니가 육아의 어려움에 자신의 서글픈 상황을 빗대어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Gerstner-Hirzel, 1984, pp. 22).

넷째, 위협적인 한국 전래 자장가

월이 월이 우리 애기/ 자장 자장 잠재 주게/ 잠을 아니 재워 주면/ 변침 밑에 검은 개야/
짖지 마라 검은 개야/ 우리 애기 잠자라고/ 만일 네가 짖어서/ 우리 애기 잠을 깨면/ 큰 칼
로 목을 찢러/ 작은 칼로 배를 따서[...] (윤혜원 2011, p. 8에서 재인용).

아이돌보는 이가 육아의 극한 상황에서 격한 감정으로 아이를 협박하는 전라도

자장가이다. 자장가에는 간혹 아이들 교육에 부적절한 외설스러운, 잔인한 언어도 구전되었다. 그러나 자장가가 어른들에 의해서 노래된 놀이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도덕적인 언어도 부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협박조의 자장가는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잠재우는 일상적인 도구로 이해되어졌다.

독일 전래 자장가에서도 잔인함과 공포를 부각시켜 아이를 잠자리에 들게 하는 협박조의 자장가를(Gerstner-Hirzel, 1984, p. 20)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괴기스러우면서도 인간의 형상을 한 대상이나 동물이 아이들에게 위협을 준다. “[...] 아이가 자지 않으면/ 검은 모습을 한 이가 와서 아이를 물어 버린다네. [...] und wenn das Kind nicht schlafen will/ So kommt das schwarz’ und beisst es.”(Gerstner-Hirzel, 1984, p. 20에서 재인용) ‘잠자지 않으면, 그러면...’이라는 시구는 대부분 협박조의 자장가에서 나타나는 형태이다. 또한 독일 전래 자장가에는 아이가 자지 않으면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 상처를 입게 된다고 노래한다(Grundmann, 2001, p. 18). 또한 어린아이에게 공포의 형상은 악마나 적군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게다가 아이를 돌보는 이는 채찍이라는 언어로 아이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아이 돌보미의 격한 감정이 자장가에 그대로 이입되어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준다(Weber-Kellermann, 1997, p. 21).

협박조의 자장가는 잠들지 않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편안한 잠의 세계로 유도하는 자장가의 근본적 원리와는 정반대이지만 어린 아이에게 사회제도나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인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위협적인 조치로는 때리는 것에서부터 감금, 잡아먹어 버린다거나 싹둑 잘라 버리는 잔인한 살인 장면에 이르기까지 아이에게 잔인함을 상상하게 하면서 불복종이 좋은 결말을 이끌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위협은 절대로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형태나 검정 사나이가 한다는 것이다(Grundmann, 2001, p. 19).

자장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소재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전래 자장가에는 한국의 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속적인 강아지나 닭, 식물이 자주 등장한다. 개는 한국 전통 농경을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전래 자장가에는 ‘명두개 (경기도 자장가)/ 앞집 개, 뒷집 개, 쿵쿵 개 (밀양자장가)/ 명

8) Gerstner-Hirzel, 1984, p. 266.

Schlaf Kindchen leise,/ draussen steht ein Preusse/ der Preusse hat eine blutige Hand/ und streift damit durchs ganze Land./ und wer nicht schläft in guter Ruh/ dem drückt der Preuss’ die Augen zu.

명이, 삼삼이 (부여자장가) 등으로 노래되었다.

독일 전래 자장가에는 양, 천사, 별, 달, 꽃이 자주 회자된다(Heinz, 1999, p. 100). 별, 달, 꽃은 인간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는 자연적인 요소로서 아동문학과 예술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 다음 소개될 독일 전래 자장가는 이러한 요소가 내포된 노래로 가사는 간단하고 쉽지만 독일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파란하늘에는 몇 개의 별이 떠 있는지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몇 개의 구름이 전 세계에 떠 다니는지? 신이신, 하느님은 그렇게 많은 수에서, 그렇게도 많은 수에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수를 세고 있단다.

Weißt du, wie viel Sternlein stehen an dem blauen Himmelzelt? Weißt du, wie viel Wolken gehn weithin über alle/ Welt? Gott, der Herr, hat sie gezählt, dass ihm auch nicht eines fehlt an der/ ganzen großen Zahl, an der ganzen grossen Zahl (Weber-Kellermann, 1997, p. 47).

상술된 자장가에서는 신의 전능함을 영겁의 별과 구름 조각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피조물로서 실재함을 역설하고 있다. 어린 아이는 독일인의 기본적인 사상인 기독교라는 종교적이면서도 우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자장가를 통해 소속된 사회 질서 및 이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전래 자장가에는 한국 전래 자장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종교적 요소가 부각되어 있다. 이유인즉, 종교는 독일인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결합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가장 커다란 존재였기(조지현, 2000, p. 117) 때문이다.

한국 전래 자장가에서도 한국인만이 믿고 따르는 민속신앙의 흔적이나 유교적인 생활태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민속신앙이란 복을 기원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민간에서 행해졌던 무속신앙으로 삼신할머니가 그 실례이다.

다섯째, 삼신할머니의 위력을 믿는 경상남도 자장가

아기야 우리 애기/ 울 애기는 잘도 잔다/ 삼신 할매 삼신 할매/ 울 애기 열줄 식카/ 건강하게 키워 주소/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윤혜원 2011, p. 10에서 재인용).

삼신할머니는 어린 아이의 탄생과 건강한 성장을 주관하는 신이며 민중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린 민속신앙 대상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삼신할머니에게 비는 행위는 특정 신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행해졌다(이기상, 2007, p. 5).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과거사를 고려해보면 어렵지 않게 삼

신할머니의 위상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장가의 사설은 아이 돌보는 이가 현재의 척박하고 고달픈 삶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전복을 기대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노랫말에 사용되는 ‘- 주소’는 명령조이지만 아이의 평안을 기원하는 애절한 부모 마음이 함유되어 있는 간절한 부탁이다.

독일 전래 자장가에는 아이의 사랑스러움과 고귀함을 꽃, 공주, 왕자, 황금으로 된 천사와 같은 사랑스러운 보물이며, 누워있는 요람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아이는 천만 굴덴(Gulden)의 가치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노래한다(Gerstner-Hirtzel, 1984, p. 18). 그러나 초창기 독일은 위생 부족, 청결 부족, 거주 공간의 협소함, 전염병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아이들이 사망하고 한 가정에 한 두명 아이만 생존할 수 있었다(Weber-Kellermann, 1975, p. 46). 이러한 열악했던 독일의 역사적, 사회적, 자연적 환경을 고려해보면 당시 몽매했던 민중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종교에 의존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착한 아이들이 잠자리 갈 때, 침대에는 두 천사가 서 있네./ 천사들은 이불을 덮어주고, 차버린 이불을 덮어 주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준다네./ 아이들이 일어나면, 두 천사는 잠자리 간다네./ 이제는 더 이상 천사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고, 사랑하는 신 자신은 아이들을 지켜준다네.

Wenn fromme Kinder schlafen gehn, an ihrem Bett zwei Englein stehn./ decken sie zu, decken sie auf, haben ein liebendes Auge drauf./ Wenn aber auf die Kindlein stehn, die beiden Engel schlafen gehn./ reicht nun nicht mehr der Englein Macht, der liebe Gott hält selbst die wacht (Weber-Kellermann, 1997, p. 66).

단순한 리듬과 즉흥적이면서도 간단한 텍스트로 전개된 자장가는 아이가 착한 아이로 인정받아 시간을 초월하여 천사와 신의 보호망에서 존재하기를 바라는 기원조의 노래이다. 기도문 성향이 내포된 자장가는 어린 아이들의 유아 교육에 밑바탕이 되었다. 독일 가정은 여러 시대에 걸쳐 상이한 문화적인 규범체계와 관습체계를 현실화하는 기틀을 제공하였으며(Weber-Kellermann, 1975, p. 7), 가부장적 사회는 가정 속에서 반복되는 훈육을 통해 올바른 인간상을 본보기로 하고 그러한 모범적인 상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수용하는 데 기여하였다.

여섯째, 아이의 희망찬 미래를 노래한 광양자장가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꼬사리로 집을 짓고/ 원추리로 대문 달아/ 대문 밖에 선 큰 애기/ 금을 줄까 옥을 줄까/ 금도 싫고 옥도 싫네/ 우리 애기 재와 주소/ 자

장 자장 우리 아가/ 우리 애기 자는 디는/ 멍멍개도 짓지 말고/ 꼬꼬 닭도 울지 마라. 아장 아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자는 디는/ 꽃이 불에 꽃방석에/ 잘도 잔다 우리 애기/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게 효자동이/ 형제간에 우애동이/ 아장아장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크거들랑/ 전라 감사 마련허소/ 우리 애기 크거들랑/ 평양 감사 마련허소/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광양자장가. MBC 라디오 문화방송, 1993, CD 4-15).

후렴구인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라는 음률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성장해온 민족의 열이 녹아있는 한국인의 소리로 애창되어 왔다. 이처럼 전래 자장가는 민족성 고취와 조상의 기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한다.

전통적인 미덕으로 효를 강조하고, 충, 의, 예를 사회적 윤리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광양 자장가는 당대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체화시킨 자장가라 할 수 있다. 민중의 시대의식이 반영된 자장가로 사회적 신분상승을 꿈꾸는 소시민의 소박함이 전라감사 및 평양감사라는 직책을 통해 직설적으로 과장됨이 없이 표출되고 있다. 상술된 자장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노래로 첫 번째 구절에 연관된 말을 연속적으로 붙여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지역의 특수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노랫말이 다르게 전승되기도 하고 지역적인 방언 때문에 낯선 어휘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자장가에는 아이돌보는 이가 처한 생활환경에서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역적 자연환경이나 문화, 사회적 환경이 투영되어 있다.

자장 자장 워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 개야 짓지 마라/ 우리 애기 잠 깨운다/ 꼬꼬 닭아 우지 마라/ 신 짜래기 받아 주마/ 자장 자장 워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돌아 오는 저 반달은/ 우리 애기 잠잔 얼굴/고이 곱게 변쳐 주네/ 자장 자장 워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금자동아 옥자동아/ 칠기칭칭 보배동아/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게 효자동아/형제간에 우애동아/ 일가친척 화목동아/ 자장 자장 워리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포항자장가. MBC 라디오 문화방송, 1995, CD 14-22).

광양자장가와 유사한 변형된 포항자장가의 전체적 구조는 아이가 미래의 지도자로서 사회를 책임질 자로 전통적 유교 중심 가치체제에 속해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 가족 사회에서는 가정의 가치관이 곧 사회의 가치관과 일치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의 위치를 가늠하고 평가하는 것이 한국 전래 자장가의 주종을 이룬다. 이런 맥락에서 옛 민중들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자아만족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였음을 시사한다.

2. 독일 자장가의 현 위치

독일 자장가에 대한 관심은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 주목 받고 있는 듯하다. 2009년 독일에서는 자장가를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선전 광고를 관망해 볼 수 있는 시기였다. 카루스-출판사(Carus-Verlag)와 쥐트베스트 2 방송국(SWR2)이 협약하고 주간지 차이트-온라인(Zeit-Online)과 레크람-출판사(Reclam-Verlag)가 공동으로 독일 자장가를 범국민화하기 위해 선두에 섰다.

코르넬리우스 하우프트만(Cornelius Hauptmann 1951-)의 창설로 시작된 자장가-프로젝트(Wiegenlied-Projekt)는 3년간에 걸쳐 기획된 문화콘텐츠로 2009년에는 자장가, 2010년에는 민요, 2011년에는 동요, 2012년에는 크리스마스 노래라는 주제로 실행되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자장가-프로젝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동시에 소개되었다. 그리고 쥐트베스트2 방송국에서는 일 년 동안 매주 정각 18시에 정기적으로 자장가를 방영하였다. 삶, 이별과 죽음, 사랑, 자연, 하루일과, 사계절, 평화, 올바름, 슬픔, 시, 영혼의 노래, 카논, 방언으로 분류된 자장가는 모국어가 독일어인 52명의 가수들에 의해 가창되었다.⁹⁾

9) 자장가-프로젝트에서 노래된 자장가는 다음과 같다:

1. 밤이 다시 돌아와요. Abend wird es wieder/ 2. 저녁에 부르는 노래 Abendlied/ 3. 밤에, 나는 잠자리 갈거예요 Abends, will ich schlafen gehen/ 4. 저녁의 고요함이 도처에 Abendstille überall/ 5. 저녁의 노래 Abendständchen/ 6. 그러나 하이드쉬 분하이드쉬 Aber heidschi bunheidschi/ 7. 모든 것이 침묵하네 Alles schweiget/ 8. 달콤한 평안 속에 모든 것이 고요하네 Alles still in süßer Ruh/ 9. 곧 밤이 다시 되네 Bald ist es wieder Nacht/ 10. 요람에서 Bei der Wiege/ 11. 하루 일을 끝났네 Das Tagewerk ist abgetan/ 12. 그는 천사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네 Denn er hat seinen Engel befohlen über dir/ 13. 저녁이 복도와 울타리로 슬그머니 들어오네 Der Abend schleiert Flur und Hain/ 14. 저녁별들 Der Abendstern/ 15. 달이 떠올랐어요 Der Mond ist aufgegangen/ 16. 하루가 벌써 사라지네요 Der Tag ist längst geschieden/ 17. 파수꾼이 각적을 불어요 Der Wächter tutet in sein Horn/ 18. 어린이의 기도 Des Kindes Gebet/ 19. 태양이 저물렀어요 Die Sonne sank/ 20. 아이아 포파이아 Eia popeia/ 21. 아이아 포파이아, 이곡은 오래된 노래예요 Eia popeia, das ist ein altes Lied/ 22. 노래가 방방곡곡에 퍼져가요 Es geht durch alle Lande/ 23. 정말 고요하게 되었네요 Es ist so still geworden/ 24. 숲을 경계해요 Es mahnt der Wald/ 25. 바람이 부네요 Es schaukeln die Winde/ 26. 언젠가 하늘이었을 때 Es war, als hätt der Himmel/ 27. 곧 바로 어두워져요 Es wird schon gleich dunkel/ 28. 잘 자라, 나의 사랑아 Gut Nacht, mein feines Lieb/ 29. 좋은 저녁, 좋은 밤 Guten Abend, gut Nacht/ 30. 착한 달아, 너는 정말 고요하구나 Guter Mond, du gehst so stille/ 31. 신은, 듣고, 너희에게 말하도록 한다 Hört, ihr Herrn, und lässt euch sagen/ 32. 공요한 밤 In stiller Nacht/ 33. 어린이가 깨어있을때 Kinderwacht/ 34. 내 아이야 Kindlein mein/ 35. 작은 새야 끌어 당겨라 Kommt gezogen, kleine Vögel/ 36. 마리아의 자장가 Maria Wiegenlied/ 37. 나는 피곤해서 안정을 취하러

방송된 자장가의 창작 시기는 16세기에서 21세기에 이르는 독일어로 된 자장가로 서독일, 남독일, 오스트리아에서 유래된 자장가로 구성되었다. 자장가-프로젝트에서 팔목할 만한 사항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명한 가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저명한 연주자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인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에 활용된 자장가가 담긴 노래책, 시디 CD 뿐 만 아니라 피아노 악보를 담고 있는 반주곡까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제작사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출판물들을 시중에 제공했다. 그리고 판매된 제작물품 금액의 일부인 2 유로(Euro)는 어린이 돕기 행사 ‘절실한 마음 재단(Herzenssache e.V.)’에 기부했다. 독일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도 적극적인 후원자였다. 더욱이 자장가-프로젝트의 기획에 의해 가창된 노래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었다. 자장가-프로젝트의 독일 자장가의 대중화와 이를 통한 기부라는 분명한 목표는 많은 독일인들에게 공감과 연대의식을 불러 일으켜 성황리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자장가-프로젝트와 더불어 쾰른베스트2 방송국과 카루스 출판사는 어린이를 위한 노래를 어린이들과 함께 부르는 것을 다시 부활시켰다([http://www.carus-verlag.com/index.php3?BLink=Liederbecher\[2014.5.5\]](http://www.carus-verlag.com/index.php3?BLink=Liederbecher[2014.5.5])).¹⁰⁾라고 찬사를 받을 만큼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다.

갑니다 Müde bin ich, geh zur Ruh/ 38. 이제는 모든 숲도 쉬어요 Nun ruhen alle Wälder/ 39. 이제는 고도도 침묵해요 Nun schweigt die Höh/ 40. 이제 우리는 저녁노래를 불러요 Nun wollen wir singen das Abendlied/ 41. 아 부드러운 쿠션을 주세요 O gib, vom weichen Pfühle/ 42. 아 나에게 밤은 얼마나 좋은지 O wie wohl ist mir am Abend/ 43. 인형자장가 Puppenwiegenlied/ 44. 모래요정 Sandmännchen/ 45. 아주 조용할 때 자거라 Schlaf in guter Ruh/ 46. 마음으로 낳은 아이야 자거라 Schlaf, Herzenssöhnchen/ 47. 곧, 자거라, 아이야 Schlaf, Kindchen, balde/ 48. 자거라, 귀여운, 아이야 Schlaf, Kindlein, süße/ 49. 자거라, 아이야, 자거라 Schlaf, Kindlein, schlaf/ 50. 자거라, 내 아이야 Schlaf, mein Kindelein/ 51. 자거라, 내 사랑하는 아이야 Schlafe, mein Liebchen/ 52. 자거라, 나의 왕자야, 자거라 Schlafe, mein Prinzchen, schlaf ein/ 53. 자거라, 자거라, 착하고, 귀여운 소년아 Schlafe, schlafe, holder, süßer Knabe/ 54. 자거라 나의 새야 Shlof main fegele/ 55. 조용할 때 자거라 So schlaf in Ruh/ 56. 조용히, 조용히,조용히, 어린아이야 자려고 하거든요 Still, still, still, weils Kindlein schlafen will/ 57. 작은 새가 둥지로 날아 가네요 Vögeln fliegt dem Nestchen zu/ 58. 언제 아이들이 잠들까요 Wann die Kinder schlafen ein/ 59. 얼마나 많은 별들이 떠 있는지 아나요 Weißt du, wie viel Sternlein stehen/ 60. 누가 가장 아름다운 양떼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Wer hat die schönsten Schäfchen/ 61. 얼마나 천진난만한 하늘 같은 사랑스런 눈인가 Wie sich der Äugelein kindlicher Himmel/ 62. 양떼들의 자장가 Wiegenlied der Hirten/ 63. 나는 두 개의 양증맞게 예쁜 장화를 신고 있어요 Zwei feine Stieflein hab ich an

10) []안에 기입된 날짜는 필자가 인터넷상에서 확인한 날짜이다.

독일 자장가에 대한 세인의 지속적인 관심은 곧 독일의 다른 도시로 이어졌다. ‘2010 유럽의 문화도시 루어-2010(Ruhr-2010 Kulturhauptstadt Europas)’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두이스부르크의 필하모니, 앙상블과 솔리스트가 2010년 10월 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 클래식 공연과 자장가 등 다양한 무대를 펼쳤다 ([http://www.duisburger-philharmoniker.de/kuluthauptstadtprojekte/wiegenlieder.\[2014.4.15\]](http://www.duisburger-philharmoniker.de/kuluthauptstadtprojekte/wiegenlieder.[2014.4.15])). 루어-2010 프로젝트 제작진들은 프로젝트의 주제를 클래식 음악과 자장가로 정하고 ‘문화를 통한 변화, 변화를 통한 문화(Wandel durch Kultur - Kultur durch Wandel)’이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고품격 콘서트 무료 개최를 실행한 루어-2010은 2009년에 시작된 자장가-프로젝트의 대성공을 본보기로 이루어진 행사로 자장가-프로젝트가 독일문화에 끼친 영향이 자못 크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장가-프로젝트의 여파는 음반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영화부문까지 영역을 확장해 위력을 과시했다. 2009년 요한 파인트(Johann Feindt)와 타마라 트람페(Tamara Trampe)는 “당신은 어머니께서 잠잘 때 불러준 노래를 기억하나요?”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자장가’를 제작하여 2010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상영하였다 ([http://www.berlinale.de/external/de/filmarchiv/doku.pdf/20100972.pdf\[2014.4.30\]](http://www.berlinale.de/external/de/filmarchiv/doku.pdf/20100972.pdf[2014.4.30])). 자장가에 대한 애호는 예술인들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대중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더욱더 활력을 띠게 되었다.

2002년 3월 21일 베를린 신문(Berliner Zeitung)의 보도에 의하면, 유명한 유아 식품 제조업체 중 한 업체가 방송국 특별 기획으로 ‘독일 자장가 인기차트(Schlaflied-Hitparade)’를 제작하며 이 대회에서 우승한 한명에게는 ‘자장가-오스카 상’을 부여한다고 대대적으로 공지했다. 그 결과 자장가 부르기 노래 대회에는 6200명에 달하는 부모가 참가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과 뜨거운 참여율을 기록했다 ([http://berliner-zeitung.de/archiv/Sabine-merker-und-ihr-mann-ralf-wollen-den-ersten-schlummer-oskar--fuer-das-beste-schlaflied-gewinnen-la-le-lu.10810590.9983644htm\[2014.4.30\]](http://berliner-zeitung.de/archiv/Sabine-merker-und-ihr-mann-ralf-wollen-den-ersten-schlummer-oskar--fuer-das-beste-schlaflied-gewinnen-la-le-lu.10810590.9983644htm[2014.4.30])). 자장가 부르기 대회는 독일인들에게 자장가에 환호를 보내는 흥겨운 문화축제의 장을 제공한 기억에 남을 만한 날이었다.

3. 한국 전래 자장가의 현 위치

독일 전래 자장가는 수세기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에게 뿐 만 아니라 세 계인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전래 자장가는 현실에서 대

중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소외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출간된 수많은 외국 자장가 음반 보급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입증된다. 매스컴에서 마저도 한국 고유의 전래 자장가를 쉽게 들을 수 없거니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음악을 비롯한 예술 행위를 천민들이 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천대시하여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상은 한국 전래 자장가의 보존, 전승 및 발전에 걸림돌이었다. 한국 고유의 음악은 당시 사회에서 배척되던 예술이었다. 또한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도입된 서양음악의 영향으로 한국 고유의 자장가는 서양 자장가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그 이후 창작된 자장가는 서양의 악기에 의해 연주되는 곡들로 대체되었다. 한국 전래 자장가가 자리를 잃음과 동시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선 자장가는 다름 아닌 독일 자장가였다. 독일어권 자장가가 조선 총독부의 통제하의 학교교육과 빠른 통신망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한국 음악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조선 총독부가 존재 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은 배제되는 시대적인 비운을 겪어야했다. 그 결과 현재에는 독일 자장가가 한국 가정 내에, 사회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장가의 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고유 언어를 강탈당했던 뼈아픈 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래 자장가가 보존되어 차후에 채록되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삼고, 그 어떤 재화로도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조상들이 남긴 고유한 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시 새로운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한국 음악계의 적극적인 활동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문화부흥정책으로 인해 한국 고유 음악을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고 세계에 홍보하는데 많은 음악가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 전통음악을 되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은 한국 음악계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전 국민적인 운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 전통 콘텐츠의 대중성을 살리기 위한 음악인들의 계획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활기를 떨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한 작금이다.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전래 자장가를 중심으로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를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국 전래 자

장가와 독일의 전래 자장가의 공통된 사항은 첫째, 두 전래 자장가는 육아의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둘째 전래 자장가에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인 요소 때문에 노래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재미를 더하게 할 뿐 더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키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자장가는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다. 넷째, 자장가의 노랫말은 명백하고 간단하며 반복이 많아 부르기에 용이했다.

그러나 독일 전래 자장가와 한국 전래 자장가는 아이를 돌보는 이가 지각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상황에 입각하여 자장가 노래 가사가 상이할 뿐 만 아니라 자연, 사회, 역사, 문화적 요인에 의해 리듬, 소재나 주제 면에서 다름을 인지할 수 있었다. 한국 전래 자장가에는 민속신앙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삼신할머니,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강아지나 닭, 꽃, 식물이 선호되었다. 주제 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전래 자장가에는 아이의 사회적 성공을 노래한 자장가, 아이들을 비교하는 자장가, 어머니의 존재나 혈연을 강조하는 자장가가 있다. 문자를 몰랐던 시절 민중들이 바라던 훌륭한 인간상은 부모 뿐 만 아니라 국가에도 공헌을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영역을 초월하는 범국가적인 인물임을 한국 전래 자장가에서 보여준다.

그러나 독일 전래 자장가에는 천사, 양, 신, 꽃, 달, 별 등 종교와 연관된 상징적인 대상이나 정서적 안정과 풍요로운 상상력을 유발시키는 자연과 연관된 소재 및 독일어 문화권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상상속의 소재가 활용되었다. 이러한 요소는 어린 아이가 속한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 아이의 성장과정과 밀접한 연관 관계에서 이해되어졌다. 이처럼 자장가에는 아이들이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래 자장가를 수용, 홍보하고 전파하는데 있어서도 두 나라는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된다. 현재 독일은 고유한 민족 유산인 자장가를 ‘자장가-프로젝트’라는 과제를 통해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환원시켜 신세대들에게 부흥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국 전래 자장가는 대중적인 호응도의 저조로 인해 국내에서마저도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 우리는 전통 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 전통 음악 콘텐츠 대중화라는 한국음악계의 새로운 대안에 갈채를 보내며 함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학 (2002). **민요의 이해**. 한국구비문학의 이해. 서울: 월인
- 김은숙 (2013). 독일 전래 자장가에 대한 이해.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33, 67-86.
- MBC 라디오 문화방송 (1993-1995). **한국민요대전**. CD Nr. 4-15. 서울: MBC 문화방송
- 조지현 (2000). Martin Luther의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의 상황의 변화. *선문사학*, 1, 116-148.
- 장영란 (2007). 한국 신화 속의 여성의 주체의식과 모성 신화와의 전복적 기제 - 어머니의 원형적 이미지 분석과 모성 이데올로기의 비판. *한국여성철학*, 제8집, 141-171.
- 이기상 (2007). 신화, 신, 신화적인 것의 해석학: 삼신 할매 신화에서 읽어내는 한국인의 살림살이 이성. *한국해석학회*, 20, 1-34.
- 윤혜원 (2011). 한국 전래 자장가에 관한 연구. *한 부모 가정학*, 제4권 1호, 1-20.
- 최상진, 윤호균, 한덕웅, 조공호, 이수원 (1999). **동양심리학**. 서구심리학에 대한 대안 모색. 서울: 지식산업사.
- Gerstner-Hirzel, Emily (1984). *Das volkstümliche deutsche Wiegenlied*. Versuch einer Typologie der Texte. Basel: Schweizerische Gesellschaft für Volkskunde.
- Grundmann, Melanie (2001). *Das volkstümliche deutsche Wiegenlied*. Eine semiotische Analyse. Norderstedt: Grin.
- Heinz, Rölleke (Hg.) (1999). *Wiegen-und Kinderlieder*. Gesammelt durch die Brüder Grimm. Weimar: Böhlau Nachf.
- Schurian-Brencher, Christiane (2001). Wenn ich schlafe, hab ich Angst. Die Bedeutung von Einschlafritualen. In Imbke Behnken, Jürgen (Ed.). *Kinder. Kindheit. Lebensgeschichte*. Bonn: Kallmeyer.
- Warum Schutzengel heilen helfen (2007). Welt Online vom 16. November
- Weber-Kellermann, Ingeborg (1975). *Die deutsche Famil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 Weber-Kellermann, Ingeborg (1997). *Das Buch der Kinderlieder*. Mainz: Schott.

<인터넷 사이트>

<http://www.berlinale.de/external/de/filmarchiv/doku.pdf/20100972.pdf>[2014.4.30]

<http://www.berliner-zeitung.de/archiv/Sabine-merker-und-ihr-mann-ralf-wollen-den-ersten-schlummer-oskar--fuer-das-beste-schlaflied-gewinnen-la-le-lu.10810590.9983644htm>[2014.4.30]

<http://www.carus-verlag.com/index.php3?BLink=Liederbecher>[2014.5.5]

<http://www.duisburger-philharmoniker.de/kuluthauptstadtprojekte/wiegenlieder.>[2014.4.1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German and Korean folk lullabies

Eun-Suk Kim

This paper focuses on cultural aspects of German and Korean folk lullabies. Our comparative analysis sheds light on some common features. A simple rhythm, a clear content and verbal repetitions can be observed both in German and Korean folk lullabies. Both musical heritages exude a folksy spirit; their lullabies may influence emotions and develop social competence and socialization of infants. Lullabies can be regarded as work songs for babysitters but could also reduce their work-related stress. In addition, lullabies constitute imaginary worlds enjoyable both for parents and babies.

Differences can be found concerning the subjects and motifs. Traditional motifs of German folk lullabies are angels, God, sheep, stars, and flowers. This imagery is deeply rooted in Christianity. One of the most conspicuous features of German folk lullabies is the pedagogic bias. The imagery in Korean folk lullabies is quite different: the mother, the family, relatives, dogs, and plants are motifs often used. In this context we may find a relation between imagery and Korean values and norms.

Key words: lullaby, culture, children, ethnicity

투고일: 2014년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23일(10월 29일), 게재확정일: 11월 20일